

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, 해산물 섭취 주의하세요!

- 해산물 익혀 먹기, 바닷물 접촉 주의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
- 간 질환자,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 필요
- 해산물 섭취 및 바닷물 접촉 후 24시간 이내 다리에 발진, 부종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신속한 치료 받을 것을 당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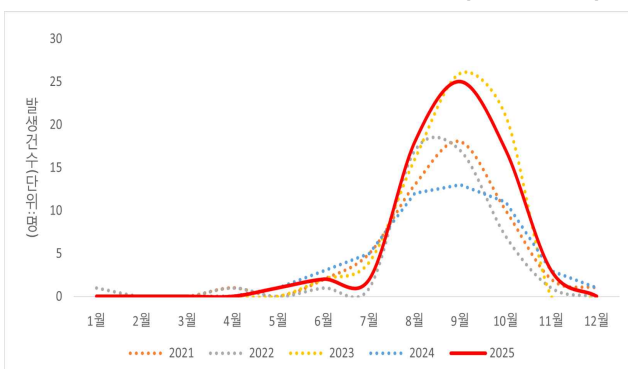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4월 23일(목)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환자는 4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으로 4월 21일부터 다리부위 부종(수포) 및 통증 증상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4월 23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되었으며,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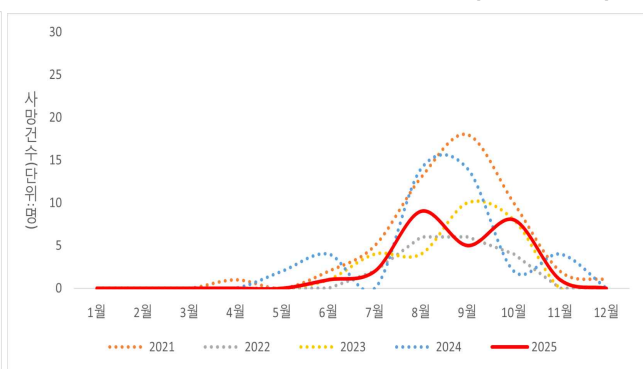
비브리오패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은 주로 해수, 갯벌,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, 매년 해수온도가 18℃ 이상 올라가는 4~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, 8~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.

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.

<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(2021-2025)>



<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(2021-2025)>



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,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, 부종, 수포(출혈성)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.

특히, 고위험군인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.

<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>

간 질환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알코올의존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악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, 게, 새우 등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증상 발생 즉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 특히 만성 간질환자, 당뇨병,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<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>

-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.
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
- ◇ 어패류는 5℃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- ◇ 어패류는 85℃ 이상 가열처리한다.
 - *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,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
- ◇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◇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◇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
- <붙임> 1.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 2.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통계
 3. 질의응답
 4. 비브리오패혈증 카드뉴스
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형민 (043-719-7140)
		담당자	연 구 관	서순영 (043-719-7157)
		담당자	연 구 사	황지혜 (043-719-7671)
		담당자	역학조사관	김동휘 (043-719-7156)

붙임 1

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구 분	내 용
정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브리오 패혈균(<i>Vibrio vulnificus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
질병 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감염병: 제3급 한국표준질병분류(KCD-8) : A41.52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>Vibrio vulnificus</i> - <i>Vibrionaceae</i>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-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발견
병원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수, 갯벌,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자유 서식
전파 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
잠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2시간 ~72시간
증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1/3은 저혈압이 동반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체(혈액, 대변, 소변, 직장도말, 구토물, 수포액, 조직)에서 <i>V. vulnificus</i> 분리 동정
치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항생제 치료 : 3세대 세팔로스포린, 플루오로퀴놀론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
전염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람 간 전파는 없음
치사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% 내외
관 리	<p><환자 관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자 격리는 불필요
	<p><접촉자 관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촉자 관리 : 불필요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경우 접촉자 발병 여부 관찰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적 예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(2021~2026)

(단위 : 명)

연도 \ 월	발생 (사망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26년	1(1)	0	0	0	1(1)	-	-	-	-	-	-	-	-
'25년	68(26)	0	0	0	0	1	2(1)	2(2)	18(9)	25(5)	17(8)	3(1)	0
'24년	49(21)	0	0	0	0	1(1)	3(2)	5(0)	12(7)	13(8)	11(1)	3(2)	1
'23년	69(27)	0	0	0	0	0	2(1)	4(4)	16(4)	26(10)	21(8)	0	0
'22년	46(18)	1	0	0	1	0	1	1(2)	17(6)	17(6)	7(4)	1	0
'21년	52(22)	0	0	0	1	0	2	5	13(6)	18(12)	10(4)	2	1

* 2025년은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현황(2021~2025)

(단위 : 명, %)

구분	계	2021	2022	2023	2024	2025*
계	284 (100.0)	52 (100.0)	46 (100.0)	69 (100.0)	49 (100.0)	68 (100.0)
성별						
남	213 (100.0)	44 (84.6)	34 (73.9)	52 (75.4)	38 (77.6)	45 (66.2)
여	71 (100.0)	8 (15.4)	12 (26.1)	17 (24.6)	11 (22.4)	23 (33.8)
연령						
50대이하	33 (100.0)	6 (11.5)	7 (15.2)	6 (8.7)	8 (16.3)	6 (8.8)
50대	68 (100.0)	16 (30.8)	11 (23.9)	17 (24.6)	11 (22.4)	13 (19.1)
60대	82 (100.0)	13 (25.0)	20 (43.5)	21 (30.4)	9 (18.4)	19 (27.9)
70대이상	101 (100.0)	17 (32.7)	8 (17.4)	25 (36.3)	21 (42.9)	30 (44.1)
기저질환						
유**	220 (100.0)	39 (79.6)	36 (78.3)	48 (69.6)	42 (85.7)	55 (80.9)
무	50 (100.0)	8 (16.3)	8 (17.4)	14 (20.3)	7 (14.3)	13 (19.1)
미응답	14 (100.0)	5 (4.1)	2 (4.3)	7 (10.1)	0 (0.0)	0 (0.0)

* 2025년 통계는 잠정통계임

** 간질환, 고혈압·당뇨병 등 만성질환 포함

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

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, 당뇨병 환자, 알코올 의존자, 면역저하 환자 등)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℃ 이하로 저온 저장, 85℃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상처치료를 병행합니다.

